

화엄사, 지역농민 살리기 팔견였다

화엄사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기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농민들을 위해 주차장에 주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풍년기원제, 추수감사제를 개최한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은 3월 18-19일 양일간 구례군 농민회를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구례군 농민회원과 가족 42명이 참석, 스님들과 다담을 나누며 '지역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구례군 농민회 초청 템플스테이 열고 자매결연

사찰 주차장에 주말농산물 직거래장터 열기로

밤늦도록 이어진 '스님과의 대화'에서 종삼 스님은 "사람이 그동안 농민에게 문턱이 높았던 것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농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자"고 말했다. 덧붙여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지역농민과 함께하는 사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구례 농민회 정정섭 회장은 "농민들은 먹고사는 현실적 문제가 급하다"며 "농산물 직거래, 지리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사업 등 찾아오는 구례가 되도록 화엄사

가 앞장서 달라"고 청했다.

이 자리에서 화엄사와 구례 농민회는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화엄사 주차장에 주말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추수감사제 개최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구례 농민회가 개최하는 영농발대식(4월 8일)에서 스님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기로 했다.

구례농민회 초청 템플스테이는 암자순례, 명상파라하기, 구례군 농민회원이 생소한 우리말 국수공양 등으로 이어졌다.

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범일규

지하철 풍경소리 광주·전라 회장



오는 4월로 개통 3년을 맞는 광주 지하철. 지하철에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이가 있다. 지하철 풍경소리 광주·전라 범일규 회장(스키 캠프 '명륜' 대표).

그는 매달 한번씩 1호선 13개 역사에 비치된 포교용 포스터를 교체한다. 포스터가 범 회장의 분신이 되어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 회장의 손길이 닿는 풍경소리 포스터는 지하철 역사에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다. 익산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기차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과 깊은 산사에서도 그의 정성이 담긴 포스터가 먼저 참배객을 맞이한다.

개인 사업에 바쁜 범회장이지만 일 보태기로 했다. 사찰이나 신행단체를 비롯하고 불교행사가 있으면 찾아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포스터를 찾는

소한 일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불생불멸'을 염불하듯 외었다. 회유하게도 서서히 가슴이 풀리는 듯 했고, 사업도 술술 풀려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불생불멸'이란 짧은 단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했는지 아질까다.

2년 전, 광주 지하철 역 명칭변경으로 불교계가 들쭉했다. '증심사 입구'라는 역 명칭에 타종교계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결국 시 의회에서 10:9로 아슬아슬하게 명칭을 유지하게 됐다. 범 회장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활동하는 불자가 되기를 다짐했다.

지역 불교계 행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했다. 사찰이나 신행단체를 비롯하고 불교행사가 있으면 찾아가 그곳을 자정하고 묵묵히 해내고

매달 지하철 역사·기차역 포교 포스터 교체

불교행사 열리는 곳 어디든 찾아가 그곳은 일 앞장

이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나선다. 그의 차에는 포교용 포스터와 엽서, 포스터 게시대 등의 장비가 항상 비치되어 있다.

풍경소리의 포스터는 굳이 불교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때로는 따뜻한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세파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포스터 앞에 멈춰서서 자기 내면을 되돌아보곤 한다.

"남도 좋고 나도 좋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있겠냐는 것이 범 회장의 행복론이다.

"살다보면 '한마디의 말(言)'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도 하는데 폭성인의 말씀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한마디에서 더 큰 감명을 받곤 합니다"

범 회장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몸과 마음이 부풀대로 부풀 풍선이 되었다. 순간 대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느 밤회에서였다.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불생불멸(不生不滅)'이 가슴을 찔러. 풀어야 할 문제는 본래 없는 것이 아니던가. 사

다. 지난해, 녀 달에 걸쳐 진행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서는 강사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한번도 빠뜨리지 않았

"흔히 불교 만나기는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 나무구멍으로 하늘 보기만큼(盲龜遇木)이나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무가 많으면 좀 더 쉽듯이 풍경소리 포스터가 곳곳에 있다면 불교를 쉽게 접하지 않을까요?"

범 회장의 원력은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풍경소리 포스터가 비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2006 생명평화 탁발 첫 발걸음

7월까지 전북지역 순례...초등생 10명도 동참

생명과 평화를 구하고 나누는 '2006 생명평화 탁발순례'가 시작됐다.

생명평화 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3월 21일 군산 내초도에서 '새만금 연안 바닷길 걷기 순례'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13개 시·군을 순례하는 탁발순례에 돌입했다.

이날 탁발순례단은 전북지역 순례에 앞서 새만금 비유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방조제 사업과 자연생태환경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새만금은 전북민의 아픔이 표출된 현장이다"며 "현장을 걸어가며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돌게 하는 지혜를 구하고자 순례의 출발지로 새만금을 택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양분된 전북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지역 순례에는 현장학습을 신청한 초등학생 10여명이 동참해 한 달간 새만금 현장을 순례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은 2004년 3월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제주, 경상 지역 등의 순례를 마치고 오는 7월까지 전북지역을 순례한다. 이준엽 기자



고불총림 울원이 개설되는 청류암 전경. 이곳은 1910년 만암 스님이 '광성의숙'이란 교육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던 불교교육의 산실이었다.

'금해-제산-만암-서옹' 율맥 잇는다

고불총림 백양사, 4월 7일 청류암에 올원 개원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가 올원을 개원하고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거듭난다. 백양사는 오는 4월 7일 산내 청류암에서 올원 개원식을 봉행한다.

이로써 백양사는 총림이 갖춰야 할 요건인 선원, 강원, 염불원과 올원을 완비한 총림으로 위상을 높게 됐다.

고불총림 울원은 홀주 혜권(前 백양사 강주), 교수사 진우 스님(용흥사 주지)과 선발된 학인들이 금해(鎭海)-제산(濟山)-만암

(曼庵)-서옹(西翁) 스님으로 이어지는 고불율맥 정선에 따라 정진에 임하게 된다. 고불총림 울원이 개설되는 청류암은 1910년 만암스님이 '광성의숙'이란 교육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던 불교 교육의 산실이다.

한편 백양사는 3월 31일까지 강원을 졸업한 비구를 대상으로 올원생 약간명을 모집한다. (061)392-7502

이준엽 기자

담양 호국사 칠성각 상량식

담양 호국사(주지 본득)는 3월 21일 칠성각 및 요사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과 지역 사암 스님,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 본득 스님은 인

사람을 통해 "호국사는 담양 시내에 자리한 도심포교당으로 중창불사와 함께 지역 포교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국사 요사채는 전면3칸 맞배지붕으로 중창불사를 마치게 되면 도심 속에서 전통 사찰의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이준엽 기자

법주사 충북포교단체 전진대회



법주사는 충북 지역 포교 지원을 위해 템플스테이 사업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광주 정광고 롬비니공연단

논산 훈련소서 훈련병 위문

광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 롬비니 공연단(지도법사 이동배)은 3월 19일 논산 훈련소 법당에서 위문공연을 펼쳤다.

훈련병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연에는 정광고 파라미다 학생회 출신 밴드(HYDREN), 3인조 그룹, 댄싱 팀(샤인)이 출연해 춤과 노래로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관련자료를 찾습니다.



법장스님께...
큰스님이 떠나신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큰스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리워 집니다.
큰스님이 너무 그리워서 이제는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큰스님의 흔적 한 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한참을 조계사 미당에서 있었습니다...
큰스님이 계시지 않은 조계사 미당이 왜 그리 넓게 느껴지던지...
행한 비림만 많다가 독이되어 있습니다.
검으로 독이오는 걸,
제가슴에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만 한 거 더 썼습니다...
-후모동 80011호 속독의 선명보도원장 주-

인곡당 법장대종사 자료집준비위원회에서는 스님의 1주기를 맞아 큰스님과 관계된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신 법장스님 관련 자료수집에 수회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스님의 자료- 사진, 법문테일, 동영상 자료등
2. 스님과의 사연 - 생전 스님과 인연에 관한 사연, 에피소드 등
3. 열반하신 스님께 전하고 싶은 편지글 등

보내주신 자료, 사연 등은 법장스님을 우리 모두가 기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록물이 되도록 자료집준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된 자료는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인곡당 법장대종사 자료집준비위원회

자료보내실곳: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덕송총림 수덕사 tel: (041)337-6627, 6565
서울 종로구 수송동58 두산위브파빌론 1012호 (우110-858)
tel: (02)723-4336 e-mail: imlabor@hanmail.net

제8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8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 건당(建幢) ② 계가·출가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교 일반	3편			
밀교 일반	3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전형방법: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접수 마 감 - 2006년 4월 28일(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5월 30일 예정
- 당선논문 발표회 - 2006년 11월 24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편당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 수 처: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www.jingak.or.kr / e-mail: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